

# “교원 정원 감축정책 재검토를”

###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24~202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우려 표명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4~2027년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이 우리교육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우리 교육

이 선진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 이에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의 재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이 실제로 이뤄지는 단위는 학급이므로 교원 정원은 학급 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24.7%에서 과밀학급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과밀학급은 더욱 증가하게 돼 교

육의 질 저하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특히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학교 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소규모 학교 붕괴를 더욱 가속화해 지역균형발전의 붕괴 및 지역 소멸을 재촉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현재 고등학교 과정에서 학생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교원 정원을 감축하면 고교학점제 성공의 핵심 요소인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은 불가능해지며, 한 명의 교사가 지나치게 많은 과목을 지도하게 돼 교과전문성 저하로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실현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책임교육의 기본인 기초학력 보장 요구 및 학교폭력, 부적응, 다문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생활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정원을 감축한다면 이러한 국가 책임교육 실현은 더욱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20일 전북대학교 농생대에서 식물의약사 정책토론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을”

### 전북대·순천대·농수산대 등 심포지엄 마련 제도 도입 필요성, 해외 사례 등 전문가 발제

농작물 병해충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 및 농약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20일 전북대 농생대에서 농촌진흥청 항생제 농약 내성 최소화 모델 정책연구팀(전북대, 순천대, 한국농수산대, 국립농업과학원)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전북대 김재수 교수(농생물학과)가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 농약을 포함하는 전체 농약에서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승돈 국립농업과학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신규 병해충집중을 방제하고, 약제 저항성 문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병해충집중의 진단 및 정확한 약제처방을 위한 식물의약사 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과 함께 관련 분야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의 노력으로 농약의 연구개발 및 등록단계에서 전문성은 높아졌으나, 유통단계에서의 전문성 제고가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제는 농약의 안전성과 함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농약 사용의 정확성을 높이는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를 위해 유통조직의 역할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식물의약사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권덕호 한국농수산대 교수는 일본, 유럽, 미국의 병해충 진단 및 처방 관련 법과 지침을 소개하며, “농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제조 및 유통분야의 체계화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에 대한 교육과 자격 부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약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이세진 순천대 교수는 “농작물에 발생하는 병해충집중 진단 및 농약 처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식물의약사 제도에서는 병해충집중 진단학, 작물보호제 처방학, 현장실습 등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국립순천대 교원진 전 총장은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작물보호제 생산 및 유통협회, 대학 간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식물의약사 제도가 정착된다면 신규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작물보호제 보유, 작물보호제 사용량 점검을 통한 농가생산비 절감, 농식품 안전성 증대를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축사에 함께 한 양오봉 총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심포지엄이 농업·농촌의 안전성과 진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전북대는 농촌진흥청과 긴밀하게 협력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직원 대상 안전·응급처치 교육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일 2층 강당에서 2023년도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도교육청 직원 중 희망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은 오전과 오후로 나눠 이뤄졌다. 특히 오전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진도 함께 했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부 양근영 응급구조사가 강사로 나서 △응급처치 일반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교육은 심정지 환자 발생시 표준심폐소생술, 구조호흡법,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일반이론과 실습을 병행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응급상황 발생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안전교육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모든 직원들이 응급상황별 대처요령을 숙지해 교육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0일 전주유화학교를 찾은 서거석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 “차별 없는 교육환경 만들 것” | 서 교육감, 전주유화학교 방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

서거석 교육감이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전주유화학교를 방문해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아이들과 함께 버블쇼를 즐긴 후 감각통합실, 유희실, 도서관, 생태체험실, 무장애통합놀이터 등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었다.

이 자리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지은(5세) 학생에게 교육감상(모범상)을 줬다.

2002년 개교한 전주유화학교는 전국 유일의 영·유아 과정 공립특수학교로 장애 영·유아 아이들의 안전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실생활 중심의 사회 적응 훈련과 다양한 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 교육감의 이번 유화학교 방문은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장애와 비장애에 차별이 없는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함이다.

서 교육감은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 아이들이 밝게 자라고 있어 너무 흐뭇하다”면서 “아이들이 장애와 비장애 차별 없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이날 전라북도 장애인 날 기념식 조직위원회 주최로 전주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43회 장애인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장애인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정은성 기자

### 전주교육지원청, 아버지 학부모 합참단 창단식

전주교육지원청 아버지 학부모 합참단이 창단했다.

이에 따르면 20일 영제교육원에서 전주 관내 유·초·중·고 학부모 중 아버지들로 구성된 전주 학부모(남성) 합참단 창단식을 가졌다.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만수)에서는 2007년부터 어머니로 구성된 전주 학부모(여성) 합참단을 운영해 왔다. 이에 학부모들의 호응이 높아 합참단 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전라북도 최초로 아버지들만으로 구성된 학부모 합참단을 창단하게 됐다.

합참단의 주요 활동으로는 매주 1회 이상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 △지역 각종 행사 특별 출연 및 교육 기부 공연 활동 참여 △연말 정기 연조회 등이 다. /정은성 기자



지난 19일 우석대학교를 방문한 아르지예브 파즐리딘 주한우즈베키스탄 부대사(사진 왼쪽)가 남천현 총장을 예방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교육 국제화사업에 힘 보태 것”

### 아르지예브 주한우즈베키스탄 부대사, 우석대 방문

세계 외교관들이 연달아 우석대학교를 방문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8일 심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에 이어 19일에는 아르지예브 파즐리딘 (ARZIEV FAZLIDDIN) 주한우즈베키스탄 부대사가 남천현 총장을 예방하고, 우석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대학 간의 교류증진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아르지예브 파즐리딘 주한우즈베키스탄 부대사는 “우석대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국제화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르지예브 파즐리딘 주한우즈

베키스탄 부대사는 남천현 총장과 회담 이후 교양관 1층 지역협력세미나실에서 우석대학교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특강도 펼쳤다.

남천현 총장은 “교육부의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BQAS)에서 인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등 세계 대학 간 교류를 확대해 글로벌 선도대학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 호원대-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체제 고도화 공동협력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지난 19일 (재)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김학권)과 전라북도 평생교육체제 고도화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 체결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자원 및 가용자원 등의 공유 △전라북도 고등평생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정보 공유 △기타 기관이 상호 협의를 따른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제주한라대 기업협업센터 운영성과 벤치마킹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지난 19일 제주한라대학교를 방문, 뷰티·헬스케어 분야 기업협업센터(ICC)의 운영성과를 벤치마킹했다.

이번 벤치마킹에서는 제주한라대학교 임창규 LINC 3.0 사업단장, 전주비전대학교 김미정 뷰티·헬스케어 ICC 센터장의 각 대학의 실무자들이 참석해, 제주한라대학교의 ICC 운영성과 등을 경험했다.

이후 양 대학의 관계자들은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의 적용방안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은성 기자

## 직업계고 학생 안전 실습환경 조성

### 도교육청,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계획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직업계고 학생들의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3년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도내 32개 직업계고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이 보장된 실험·실습 중심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계고 유형별 안전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안전관리 계획에는 직업계고 대상 실험실습실 안전 점검, 실험·실습 안전용품 지원, 실습실 작업환경 측정비용 및 특수건강진단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실험·실습 안전용품 지원은 전공 특성별 필요 실습복, 안전화 보호안경, 안전모 등 학생 개인별 안전 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2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어 특수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실험·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및 교사 2988명과 82개 실습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28개교에 4억3,000여만 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직업계고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도내 직업계고에 배부했다. 유형별 안전 지침은

물론 위험장비·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상황별 발생 사고 대처요령까지 꼼꼼히 담아 학교 실험·실습실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매월 1회 실험·실습 안전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은성 기자

### 도교육청 무주도서관, 상반기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추진

전북도교육청 무주도서관(관장 임소영)은 오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습관 형성 및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독서활동수업과 무주도서관 사서가 직접 실시하는 사서 직업 체험으로 이뤄졌다.

참여를 희망한 학교 중 7개교를 선정 운영할 계획이다. /정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